

칼럼

장기채 주필



한가위와 옛 조상들의 처세철학

우리는 어느 민족 못지않게 가을을 좋아한다. 아침, 저녁 소매 자락에 스치는 바람결도 시원하고 청자 빛 하늘은 더욱 높아만 보인다. 천고마비(天高馬肥)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가을에 풍족히 거둔 농산물로 조상님께 감사하는 '한가위'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올 여름 그 지긋지긋한 폭염은 가실 줄을 모르지만 이내 드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질 것이다.

"까치들이 울타리 안 갠나무에 와서 아침 인사를 하기도 전에, 무색웃음에 땀방울을 흘린 아이들은 송편을 입에 물고 마을길을 쏘다니며 기뻐서 날뛰다. 어른들은 해가 중천에서 쫄기울어질 무렵이어서, 차례를 치러야 했고 성묘를 해야 했고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다 보면 한나절은 넘는다. 고개 무거운 벼이삭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들녘에서는 마음 놓은 새떼들이 모여들어 풍성한 향연을 벌인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에 나

온 추석 풍경을 묘사한 글이다. 그러니까 첫 머리는 1897년의 한가위에서 출발한다.

이 세상에서 달과 가장 친근한 나라를 들자면 어떤 민족도 우리 앞설 수 없을 것이다.

어둠 속에 빛을 발하여 은둔자의 자세를 지닌 달은 옛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슬픈 날 바라보는 달은 슬픔을 위로해 주고, 보고픈 이가 그리운 밤에는 그의 얼굴이 되어 주기도 했던 친구와 같은 달이다.

또 오랫동안 우리의 소망을 빌어왔던 달은 승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제 과학의 발달로 달과 교교(皎皎)한 그 빛에 대한 신비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다운 한가위 풍속만큼은 면면이 이어오고 있다.

그때도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모처럼 근심을 내려놓고 그리운 이들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가위는 여전히 축복의 시간일 것이다. 이번 추석에는 황금연휴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끼여있어 고향

을 찾는 귀성객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 같다.

하늘이 청명하다. 온 산천이 푸르르다. 햇살도 따갑다. 힘들게 여름을 버텨온 황금벌판... 벼들도 햇살을 더 받으려는 듯 키를 쭉쭉 높인다. 한가위에는 굶주리는 게도 없다고 한다. 그만큼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이 아니던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참으로 정감이 넘치는 그리고 풍요로운 말이다.

아직도 한 낮의 따가운 폭염을 사그라질 줄을 모른다. 그런데도 추석은 벌써 코앞이다. 어렵기만 한 경제에 선물 꾸러미가 가벼워질 고향길, 그만큼 발걸음은 무겁기만 할 것이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고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도 한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빻어 나눠 먹었다고 해서 속담 중에 "일년열두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생겼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팔월 한가위야말로 일년 중

가장 풍요로운 날이요, 설과 더불어 큰 축제의 날이기도 하다. 또 우리네 세시 풍속의 하나로 '아홉 차례'라는 말이 있었다. 이처럼 십 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금은 모자라게 사는 구분철학(九分哲學)은 우리 한국인이 터득하고 살아온 처세철학이다. 밥은 많이 먹지 말고 세력은 남김없이 부리지 말며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복은 남김없이 누리지 않는 것이 화를 멀리하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인생에 있어 욕심이나 돈, 권력, 명예 등을 적정선에서 자제해야지 가득 채우려 하면 무(無)로 돌아간다는 구분철학의 구현인 것이다.

비빔 일정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고 각박해지는 때일수록 모두들 고향으로 내려가 어른들을 찾아보고 차례를 지내며 정을 나눠야 한다. 한가위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쌓아온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을 맑게 닦아내는 날이다. 가족들의 정으로 마음을 위로받고 다시 기운을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가위 날 조상숭배와 부모님을 찾아보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향로(香爐)의 연기가 가물거리리는 차례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손이 없다면 부모님들은 얼마나 쓸쓸하고 섭섭하겠는가.

올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노 부모님의 풀기 없는 손을 잡아보자.

社 說

합계출산율 끌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2명에 그치며 매해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출산 꼴찌' 국가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1년 전(32만68001명)보다 2만4100명(-7.4%) 감소했다.

전년대비로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감소 흐름이다.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1년 전(0.98명)보다 0.06명(-6.0%) 하락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내려왔던 건 지난 2018년이 최

소다.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소속 37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

OECD 평균치는 1.63명이다. OECD 기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는 '저출산'으로, 1.3명 이하일 때 '초저출산'으로 분류된다.

2.1명의 기준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율로 계산된다.

한국은 2002년부터 17번째 초저출산 국가다. OECD 중에선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상반기 영광군을 주목할 만하다. 영광군은 전남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상반기 출생아수 1위를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는 283명으로 2위 무안군(224명)보다 59명 많고, 2018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던 해남군(209명)보다도 74명이 많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택구입 대환이자 지원 사업'도 올해 확대 추진하고 결혼·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떨어진 출산율을 위해서 다양한 결혼·출산·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퍼붓고도 추락하는 출산율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요양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번길 7

회 장 · 발 행 인 · 편 집 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권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00021 (월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킵라니' 안전규제 마련돼야

'킵라니'에 대한 규제 등 제도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공유 킵보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관련 법 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킵라니는 '킵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놀라게 하는 전동 킵보드 운

행자를 일컫는 속어다.

개인형 이동 수단(PM)은 전동 킵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을 총칭한다. 공유 킵보드 업체가 크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2만대 이상이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 사고도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는 4명에서 8명으로, 중상자는 35명에서 140명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PM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규정이 없어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종의 '오토바이'로 취급됐다.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면허가 요구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적용받았다.

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공유 킵보드 업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12월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킵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PM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안전규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